

문화포럼

# 성과 창출 높일 89개 사업 점검

##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 중점관리 보고회 개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정읍시가 민선 6기 반환점을 앞두고 중점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부터 다차 차례에 걸쳐 김생기시장 주재로 양심목 부시장을 비롯한 각 소관 국, 단,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 등 89개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는 “그동안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지자체 유치, (주)다원시스투자 유치 관련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읍의 100년 먹거리와 미래를 견인할 이들 중점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추진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보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김 시장은 문화행정복지지구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태산선비문화원 관광자원화 사

업과 최치원 프로젝트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피항정 상연지 복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국립한글문화원 유치 노력 가속화 ▲서남권 추모공원 시설의 원활한 운영 ▲속도감 있는 연지시장 정비사업 추진 ▲내장산 콜택시 홍보 및 이용자 증대 방안 모색 ▲KTX 추가 정착 및 증편과 관련,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대책 강구 등을 지시했다

이어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과 관련 ▲적합한 시설 위탁을 통한 청정유기농 포도채집센터 활성화 ▲산내면 경관농업을 활용한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소득창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후속조치 적극 이행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조기 착공을 통한 단지 내 입주기업 입주 여건 마련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내장산리조트 조기 분양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특히 “시의 굵직하고 중대한 사업들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과 관련해서는 ▲배리 판매대책 강구와 정읍 대표 특화품목 적극 육성 ▲생활권 주민들을 위한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조기 구축 ▲정읍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전 시민 동참 유도 등 적극적인 인구 회복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방안 마련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시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과 시민간의사업의 누수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정읍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들도 미라리리 발굴하여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철저히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에 반영한은 물론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교월동 주민자치센터 주부 노래교실 큰호응

김제시 교월동주민자치센터(동장 박상문)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월동 노래교실은 지역주민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교월동 주민센터 2층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노래교실에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강기간에 배웠던 곡을 선정해 율동과 노래로 꾸민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여 지역 내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이용해 적극적인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5월20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김제 모악산축제에서 '천정암마을의 사랑의 하모니 공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기도 하였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이 지역주민들의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신바람나고 즐거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직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는 문화예술 소외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17일 오후 3시 용지면 비룡마을에서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에게 무료 공연체함과 난타, 색소폰, 노래, 풍기타 등호화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으며, 주민과 함께 즐기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일상에서 누구나 연연히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같이 놀자! 동네음악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오는 7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정하, 공덕, 백구, 죽산면에 있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 무료공연체함과 음악, 무용, 전통 분야의 동호회 공연으로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금도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사장은 "작은음악회를 통해 농사일에 지친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일상적 문화예술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생활 속에서 행복을 증진하는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주민복지과, 농촌일손돕기

김제시 주민복지과(과장 남궁행원)는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16일 직원 16명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농촌일손돕기는 김산동의 포도재배 농가를 방문해 포도밭 3,000여평에서 포도 수확기 작업을 도왔다.

직원들은 수확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일손돕기 후에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에도 관심을 쏟았다.

농가주 박모씨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배 벗고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작업을 도와주신 덕분에 적기에 수확기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민대책위는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한 기념일 제정을 원하며, 역사적 사실도 규명되지 않은 '전주화약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것은 반대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 정읍시민대책위, “‘전주화약일’ 국가기념일 지정 반대”

### 성명서 발표... 관군의 거짓 약속에 속아 농민군의 희생만이 기록되어 학문적 검증 안돼

최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6. 11)로 지정하려는 문체부 학제재단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감오농민 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시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 정읍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공동대표 이상봉·이한욱·이갑상)는 15일 오후

3시 계승사업회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한 기념 제정일을 원하며, 역사적 사실도 규명되지 않은 전주화약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것은 반대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이한욱·이갑상 공동대표는 전주화약일은 관군의 거짓 약속에 속아 농민군의 희생만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도 학문적 검증이 해소되지 않고, 논쟁이 계속되는 날이라며 기념일 제정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대책위는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한 기념일 제정 ▲우리 정읍시민의 주장을 지역이주의로 매도하지 말 것 ▲고부 봉기일과 황토현 전승일을 존중하라는 결의안을 낭독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항의 방문과 국회 입법 청원 추진 등을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선정

### 보건복지부 공모에 전국 254개 보건소 중 농어촌형으로는 유일하게

부안군 보건소소장 김달천)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16년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에 전국 254개 보건소 중 농어촌형으로는 유일하게 부안군 보건소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발병률 지속 증가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잠재적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청장년 층의 건강관리 소홀 등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대상은 국가건강검진 연계 대상자 중 30~50세 연령층으로 치료하기 전 단계인 만성질환 건강 위험요인(고혈압,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1개 이상 있는 사람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디바이스 연동 플랫폼(스마트폰 앱, 활동계, 체성분계, 혈당계, 혈압계)을 맞춤형으로 구축해 보건소 전담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인력)이 건강정보, 식습관, 운동활동량 등을 제공한다.

또한 대상자가 혈압, 혈액검사, 영

양식이 등을 측정·실현해 보건소로 전송·관리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함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30~50세 연령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신체계측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해 자가 건강관리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을 감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남재현 원장, 정읍서 특강

### '건강의 이해와 실행' 주제로

'후포리 남서방, 국민사위'로 유명한 남재현원장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프랜차이즈 내과의원 원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원장은 이날 '건강의 이해와 실행'이라는 주제로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건강 상식 등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장은 특유의 화법으로 옹기종기 않은 습관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의학적 지식과 일상생활

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도 소개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 지식 등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성인병과 비만 및 다이어트,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바른 습관 등 현대인이 알아야 할 건강 상식을 배워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장은 SBS '차기야백년 손님'에서 '후포리 남서방' 국민사위로 통하며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신태인읍은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상대로 정읍시 전입 시의 혜택을 설명했다.

## 정읍신태인읍, 인구 늘리기 캠페인

정읍시 신태인읍은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6일 오전 9시 정읍북부노인복지관에서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가졌다.

캠페인에는 이장협의회와 신태인 발전협의회, 읍사무소, 정읍북부노인복지관 등 기관단체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상대로 정읍시 전입 시의 혜택을 설명했다.

읍은 "실제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읍내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있는 민원인을 위해 '현장방문 전입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읍 관계자는 "인구정책은 어려운 과제인 만큼 관 주도만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 늘리기는 읍민 모두가 함께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만큼 전 읍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및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다

##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어린이 해수욕장 개장

### 내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및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 해수욕장을 오는 18일부터 개장된다.

어린이 해수욕장은 깨끗한 지하해수를 사용해 에어 풀장 2개, 수상미끄럼틀 2개 등의 시설로 개장하며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 음수대, 정자, 평상 등을 갖추고 있다. 18일부터 8월 28까지(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간호조무사,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 안전사고에 민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용요금은 중학생 이하는 3000원, 성인(고등학생 이상)은 보호자로서 1000원으로 저렴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은 물놀이 장 뿐만 아니라 보트, 수상자전거, 카약, 삼색소금, 페카 공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캠핑장, 마루아리하우스(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있어 여름 휴가지로 최적의 장소로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